



‘아! 0.01초’ ‘배추보이’ 이상호의 눈물

‘배추보이’ 이상호가 8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16강전에서 질주하고 있다. 이상호는 8강전에서 빅 와일드(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게 0.01초 차로 저 탈락했다. 그는 2021-2022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부문 종합 1위를 달리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 0순위’로 꼽혔었다. /연합뉴스

“세계 80억 인류 모두가 심판이다”

쇼트트랙 중국 텃세 판정 “이런 부당한 일 다시는 없어야” 대한체육회, IOC에 직접 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전례 없는 ‘개최국 텃세 판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8일 중국 베이징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과 유인택 부단장,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이소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코치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윤 단장은 “IOC 위원인 이기흥 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즉석 CAS에 제소하겠다. 다시는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이다. 선수단은 여제 현장에

서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ISU는 이날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두둔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현(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당했다.

이 때문에 중국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한 결승전에서도 황당한 판정이 이어졌다.

헝가리의 사울린 산도르 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은 그에게 패널티 두 개를 줬고, 중국의 런쯔웨이야 금메달을 받았다.

윤 단장은 “젊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 가꾼 4년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선수단장으로 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수단을 귀국시키는 등 대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은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8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새 역사 썼다

남자 싱글 쇼트에서 99.51점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올림픽 도전 역사를 새로 썼다.

차준환은 8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4.30점, 예술점수(PCS) 45.21점, 총점 99.51점을 기록해 29명의 출전 선수 중 전체 4위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올림픽 쇼트프로그램에서 5위 안에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준환은 올림픽 첫 무대였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프로그램에서 15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쇼트프로그램 기존 개인 최고점(98.96점)도 경신했다.

차준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는 ‘점프 머신’ 네이션 텐(미국·113.97점), 일본의 가가야마 유마(108.12점), 일본의 우노 쇼마(105.90) 뿐이다.

차준환은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일본 하뉴 유즈루(95.15점·8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23번째로 은반 위에 선 차준환은 ‘페이트 오브 더 클럭메이커’(Fate of the Clockmaker)의 선율을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연기 과제이자 필살기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기본점 9.70점과 수행점수 3.33점을 받았다. 이후 기본점 10.80점의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하게 뛰었다.

첫 비점프 과제인 플라잉 카멜 스핀도 좋았다. 레벨 4를 받았다.

연기의 완성도를 높인 차준환은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 시도한 마지막 점프 과제, 트리플 악셀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

모든 점프 과제를 마친 차준환은 체인지 풋 스피드 스텝 시퀀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모두 레벨 4로 처리하며 베이징 올림픽 첫 무대를 마무리했다. 흠 잡을 것 없는 ‘퍼펙트 클린 연기’였다.

연기를 마친 차준환은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쥐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함께 출전한 이시형(고려대)은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거푸 실수를 범해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총점 65.69점으로 27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충격의 노메달’ 쇼트트랙, 오늘 다시 도전

남자 1500m 예선과 결승 황대현·이준서·박장혁 출전 여자 1000m 준결승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도

5일과 7일 경기에서 ‘충격의 노메달’에 그친 한국 쇼트트랙이 9일 첫 메달 획득에 다시 도전한다. 우리나라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특히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현(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모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해 아쉬움이 더욱 컸다.

황대현은 준결승 1위, 이준서는 2위로 들어와 결승에 진출하는 듯했지만 나란히 레인 변경 반칙을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이 두 차례의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실격당한 자리에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고,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골인했지만 역시 반칙이 선언되며 중국 선수들이 금, 은메달을 휩쓸었다.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남자 1500m 예선과 결승, 여자 1000m 준결승,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이 펼쳐진다.

메달이 나오는 남자 1500m에는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스포츠토도)이 출전한다.

박장혁은 7일 1000m 경기 도중 왼쪽 손가락을 다쳐 11바늘을 꿰맸으나 준결승에 오르기도 기권했다.

일단 박장혁은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남자 1,500m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장혁은 남은 경기 출전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자 1500m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밤 10시 20분에 시작할 예정이다.

남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예선에는 이채운(봉담중)과 이나운(수리고)이 출전한다.

2006년생 이채운은 이번 대회 출전한 한국 선수 65명 가운데 최연소다.

또 이나운이 나가는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예선에는 2018년 이 종목 우승자인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이 출전한다.

7일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33위를 기록, 한국 여자 선수의 알파인 스키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을 낸 김소희(하이원)는 강영서(부산시체육회)와 함께 회전 경기에 나선다.

7일 대회전 1차 시기 도중 넘어진 미케일라 시프린(미국)도 회전에서 명예 회복을 노린다. /연합뉴스